

2020학년도 세종대학교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문항 및 해설



1. 문항 및 제시문

(가)

이전에는 제후들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어 높은 관직과 풍족한 봉록을 주면서 천하를 떠돌며 유세하는 선비들을 자신의 나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하가 이미 하나로 통일되어 태평과 안정을 누리고 있고, 법령 역시 모두 하나로 통일되어 백성들은 집에서 생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학(儒學)을 공부하는 선비들은 새로운 시대의 법령과 제도를 익히는 대신 오로지 과거의 학문과 일만 배우고 익히면서 새로운 시대를 시종일관 부정하고 백성들을 의혹과 어리석음으로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臣) 승상 이사(李斯)는 죽음을 무릅쓰고 감히 아뢰겠습니다. 과거 천하가 분열되어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온 세상을 바로잡아 안정시키고 하나로 통일할 만한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제후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일어났고, 유학을 공부한다는 선비들은 말만 꺼내면 옛일을 들먹이며 현실을 비난했습니다. 또, 모두 자신이 개인적으로 배우고 익힌 지식을 가지고 나라에서 제정한 정책과 법령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황제께서는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셨고, 옳은 일과 잘못된 일을 분명하게 가려 주는 큰 법령과 도리 역시 하나로 제정하시었습니다.

그럼에도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들은 개인적으로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며, 나라에서 새로운 법령과 제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에서 새로운 법령이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 제각각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익히고 배운 학문의 잣대를 들이대고 비판합니다. 또, 그들은 조정(朝廷)에 들어오면 마음속으로는 반감을 품고, 조정 밖에 나가서는 이것은 맞네 저것은 틀렸네 하고 거리에서 마구 떠들어 댁니다. 또, 명성을 얻기 위해 황제 앞에서까지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놓고, 남과 견주어 특별하게 비교될 만한 기발한 주장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비난을 늘어놓고, 또한 못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들의 이와 같은 행동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위로는 황제의 권위가 추락하고 아래로는 봉당(朋黨)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마땅히 이를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은 간청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로 하여금 진(秦)나라에 관한 내용 이외의 모든 기록을 불태워 버리도록 하십시오. (중략) 그러나 의약과 점복, 그리고 농업에 관한 서적들은 불태우지 마시고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령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라의 관리를 스승으로 삼아 배우게 하십시오.

(나)

다시 대학생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물론, 내가 한 말은 농담이었지만, 생각을 해 봐, 한편으로는 어리석고, 의미 없고, 하찮고, 못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니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해만 끼치는 그런 병든 노파가 있어. 그 노파는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또 그렇지 않아도 얼마 안 있으면 저절로 죽게 될 거야. 알았어? 알아듣겠어?”

“그래, 알았어.” 장교는 흥분해 있는 친구를 주의 깊게 보면서 대답했다.

“더 들어 봐. 다른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면 좌절하고 말 싱싱한 젊은이가 있단 말이야. 그런

젊은이는 도처에 있어! 그리고 수도원으로 가게 될 노파의 돈으로 이루어지고 고쳐질 수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선한 사업과 계획들이 있단 말이야! 어쩌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수십 가정들이 극빈과 분열, 파멸, 타락, 성병 치료원(性病治療院)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 이 모든 일들이 노파의 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빼앗은 돈의 도움을 받아 훗날 전 인류와 공공의 사업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노파를 죽이고 돈을 빼앗는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작은 범죄 하나가 수천 가지의 선한 일로 보상될 수는 없는 걸까? 한 사람의 생명 덕분에 수천 명의 삶이 파멸과 분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의 죽음과 수백 명의 생명이 교환되는 셈인데, 이런 간단한 계산 아닌가? 그 허약하고 어리석고 사악한 노파의 삶이 사회 전체의 무게에 비해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그 노파의 삶은 바퀴벌레와 이(蠱)의 삶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하다고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노파는 해로운 존재니까. 그 노파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잖아. 그 여자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핏속에 리자베타의 손을 깨물어서 거의 잘라 낼 뻔했다고!”

“물론, 노파는 살 가치가 없어. 하지만 자연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 장교는 지적했다.

“에이, 이봐, 자연을 변화시키고 조정하는 것은 인간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편견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어 버렸을 거야. 사람들은 ‘의무니, 양심’에 대해서 말을 하지. 난 의무와 양심에 반(反)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냐. 다만 우리가 그 의무와 양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하는 거지. 들어 봐, 내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아니, 잠깐, 내가 질문을 하지, 들어 보라고!”

“그래, 그럼!”

“너는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지. 너는 네 손으로 그 노파를 죽일 수 있겠어?”

“물론, 아냐! 난 다만 정의를 위해서…….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지…….”

“내 생각에는 만일 너 자신이 그 일을 결행할 마음을 먹지 못한다면, 거기엔 어떤 정의도 있을 수 없어!”

(다)

(다윈은) 자연 선택의 다양성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윈은 “변화는 생명체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서, 번식 행위를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 신의 의지 같은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라고 썼다. 이 글 어디에서도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열등하며,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도 좋다는 뜻은 담겨 있지 않다. 다윈은 다양한 생물종을 관찰한 뒤, 생물체를 있게 한 원동력은 환경에 적응하며 얻게 된 ‘다양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략)

자연계에서 이러한 예는 무궁무진하다.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일지라도 이를 활용할 줄 아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소의 배설물이 쇠똥구리에게 더없이 훌륭한 먹잇감이 되고, 악어의 이빨에 끼인 찌꺼기조차 악어새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동물의 모습을 보노라면, 오로지 타인을 짓밟아야만 살 수 있다는 잔혹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는 생태계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질 정도다. 이처럼 생물체는 다양성의 증가라는 방식을 통해 저마다 자신에게 적합한 자원을 쓰고 자리를 차지하면서 무리 없이 살아간다.

다양한 생물종이 아무리 제각각 다양한 자원을 나누어 살아간다고 해도, 생물의 가짓수에 비해 자원의 가짓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자원을 놓고 여러 생물종이 경쟁해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서로 다른 종을 없애고 모든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아니, 실제로 많은 생물종은 서로를 내쫓기 위해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는 한다.

1. 제시문 가)의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의 입장에서 이사(李斯)의 주장을 반박하시오. (250점, 400~5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제시문 가)에서 이사(李斯)의 주장과 나)에서 대학생의 주장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기술하고,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이를 비판하시오. (450점, 800~9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출제 의도

2020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은 ‘고교 교육과정과 관련 성취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범교과적인 문항을 출제하였다. 역사, 문학, 과학 분야의 다양한 지문을 활용하였으나, 특정한 사전 지식 없이도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된 독서 및 글쓰기 능력이 있다면 수월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논술은 지원자들의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비판 능력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세종대학교 학생으로 선발될 충분한 종합적 사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항 1>은 중국 진시황 시대 분서갱유 사건을 초래한 이사(李斯)의 글을 활용해 독선적 사고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를 요구한다.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의 논리 전개 방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해력과 제시문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논파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문항 2>는 공동체 운영에서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옹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논증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문항 2>는 제시문 가)의 이사의 주장과 나)의 대학생의 주장이 지닌 공통점을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윈의 생태계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비판할 것을 요구한다.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해력과 서로 다른 유형의 제시문들을 주어진 문제와 관련지어 재구성하고 그 안에서 비판의 논거를 찾아낼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장 구성력 및 표현력 등이 필요하다.

위에 열거한 능력들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다면 충분히 갖추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대학교 모의논술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고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3.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와 문법	이사	지학사	2014	100~102	제시문 (가)	재구성 없음
고전	토스토예프스키	천재교육	2014	262~266	제시문 (나)	재구성 없음
독서와 문법	이은희	교학사	2014	243~245	제시문 (다)	재구성 없음

4. 문항 해설

<문항 1>은 제2012-14호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국어 I (31014)]에 따른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며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독서와 문법 (310419)]에 따른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 능력’, [화법과 작문 (310321)]에 따른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파악하여 듣고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항 1>은 제시문 가)의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가 분열을 조장하는 쓸모없는 존재이므로 진의 역사서와 실용서를 제외하고 불태워버려야 한다는 이사(李斯)의 주장을 반박하도록 과제를 구성하였다. 이 문항은 이사의 주장이 지닌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옛 것을 돌아보고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선비들의 비판정신은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탄압하는 행동이야말로 국가에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추론해낼 것을 요구한다.

<문항 2>는 제2012-14호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310419)]에 따른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 능력’과 [화법과 작문 (310320)]에 따른 ‘논제의 쟁점을 분석하여 논증을 구성하는 능력’, [국어 II (31027)]에 따른 ‘작문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는 능력’, 그리고 [국어 I (31018)]에 따른 ‘선정한 정보를 잘 조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쓰는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항 2>는 제시문 가)와 나)가 모두 논리적 모순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시문 다)에서 제안하는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논거로 삼아 이를 비판하도록 과제를 구성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먼저 제시문 가)의 이사의 주장이나 나)의 대학생의 주장은 모두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독선에 빠져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으로 타자를 제거해掉된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가)와 나)의 주장은 다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오류를 낳으며 이는 결국 다양성을 배제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막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문 다)에서 주어진 생태계의 작동원리라는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 속에서 생물종들은 상호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으며,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생물종을 몰살하지도 않는 등 다양성과 공존의 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다)의 논점에 초점을 맞추어 가)와 나)의 주장을 비판해야 한다.

5. 채점 기준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1번 소문항	이해력	90	250	700
	비판적 사고력	90		
	표현력	35		
	정서법	35		
	분량 미 준수	-10 ~ -30		
2번 대문항	이해력	120	450	
	비판적 사고력 1	120		
	비판적 사고력 2	120		
	구성 및 표현력	50		
	정서법	40		
	분량 미 준수	-10 ~ -40		

6. 예시 답안

1. 제시문 가)의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의 입장에서 이사(李斯)의 주장을 반박하시오.
(400~500자)

이사는 황제가 천하를 하나로 통일한 후 세상이 태평과 안정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법령과 도리를 흔들며 다시금 나라를 분열에 빠뜨리고자 하는 유학자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진나라의 역사서나 의약과 점복, 농학 등 실용적인 용도를 지닌 서적을 제외한 모든 책을 불태워 버려 봉당을 조장하는 유학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 나라의 정책과 법령은 완벽한 듯 보여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제정한 것이기에 이를 비판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이는 나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옛것을 돌아보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유학자들의 비판 정신이야말로 나라의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사의 주장처럼 법령과 제도를 비판하는 유학자들을 탄압하여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야말로 국가에 해를 입히는 것이라 하겠다.(482자)

2. 제시문 가)에서 이사(李斯)의 주장과 나)에서 대학생의 주장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기술하고,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이를 비판하시오. (800~900자)

제시문 가)의 이사와 나)의 대학생은 모두 자신의 관점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에 빠져있다. 이사는 유학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가의 분열을 조장하는 학문이라고 비판하였고, 대학생은 노파를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에 비유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사는 진나라의 역사서와 의약과 점복 그리고 농업에 관한 책들을 제외한 모든 서적들을 불태워야 한다고 말하며, 대학생은 노파를 살해하고 그 돈을 빼앗아 선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요컨대, 이들은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폭력적으로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어나 대학생의 주장은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볼 때 비판의 여지가 있다. 제시문 다)에 따르면, 생태계의 작동원리는 다양성의 공존이다. 생물종은 우열이 없으며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 역시 생태계의 중요한 일원이다. 또한 생물종은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 다른 종을 없애지 않는다. 설사 같은 자원을 놓고 경쟁하더라도 스스로 공존하는 방식을 찾아 나간다. 따라서 다양한 생물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이어나 대학생처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독선은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며,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시켰기에 진나라의 법령과 도리를 비판하는 유학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사의 주장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악한 노파를 죽이는 것이 인간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의 주장은 개인의 편견에 기초한 독선에 지나지 않는다.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서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체와 개인의 공존을 꾀해야 한다.(880자)